

# “임실 김장페스티벌로 오세요”

### 30kg에 15만원선... 임실표 청정배추, 고추 등 안심·돔텐트 설치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에서 열리는 김장페스티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 등에 따르면 재배면적 감소로 배추와 무 등의 가격 상승으로 김장 비용도 지난 해 보다 10% 이상 상승한 30만원(4인가족 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세 차례의 가을태풍과 재배면적 감소, 작황부진, 영농비 상승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배추와 무, 고추 등의 가격이 폭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그러나 임실군에서 개최하는 김장페스티벌에 참여하면, 보통 3~4인 가족 기준인 김장김치 30kg에 15만원선에서 김장가격을 크게 덜 수 있다.

임실군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임실엔양념가공김치체험장 광장에서 열리는 제4회 임실아사아사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미처 사전예약을 못했다면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높은 인기 속에 지난 해 이틀에서 일주일의 대기 시간을 보냈던 배추와 무, 고추 등 27톤에서 44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의 경우 참여 인원은 544팀에 2천여명이었으나, 올해는 900여팀에 3600여명의 참여가 가능할 만큼 물량을 대폭 확보했다.

임실군 김장페스티벌에 참여하면 배추와 고춧가루, 무, 양파 등 김장 재료를 직접 구매해서 할 때보다 30%~40% 저렴하게 김장을 해결할 수 있다.

김장재료의 원산지, 품질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김치명인과 함께 청정 임실에서 생산한 배추와 고추 등 우수 농산물로 버무릴 수 있다. 황사 등 미세먼지에 대비해 대형 돔텐트도 설치, 위생적으로 김장을 담글 수 있다.

김치맛을 책임질 김치숙 양념도 작년보다 더욱 신경 써 속이 짝찬 김치를 맛볼 수 있다.

임소문을 타고 사전예약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접수율은 70%선을 넘어섰고 있다. 아직도 김장을 해결하지 못한 가정이나 단체에서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심민군수는 “올해는 굿은 날씨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배추와 무, 고추 등 가격이 크게 올라 김장비용 부담도 커질 것 같다. 하지만 김장페스티벌에 오시면 맛있는 청정김장김치를 부담없이 담겨 가실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올겨울 김장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페스티벌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즐기시고, 오신 김에 아직 국화꽃이 만발한 임실치즈테마파크나 단풍이 물든 옥정호와 성수산 등 지역 관광지 등도 둘러보시면 일석이조가 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개관식 눈앞

###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순창군이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누리센터 건립하고 오는 11월 6일 개관식을 갖는다.

행복누리센터는 39억원을 투입,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942㎡로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한 행복누리센터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 연령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행복중심 복합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해피니스센터가 들어섰고, 꿈나무 아동돌봄센터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피니스 센터는 젊은 부부들이 유아를 데리고 방문해 아이와 함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앞으로 입주할 꿈나무 아동돌봄센터는 지역의 만 3세~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출산율까지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순창군 노인의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순창 지역사회의 큰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3층에 설치하여 언어교육은 물론 순창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년층을 위해 2층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는 물론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토크방 등을 설치해 지역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 추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는 관내농업인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소독창출지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들이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소셜네트워크를 형성, 유통마케팅 부분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활용능력 높이기, 블로그 활용, 네이버·페이스북등과 연계된 소피 플랫폼을 만들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능력을 함양,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소통의 중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농산물 판

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플랫폼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들이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SNS를 활용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익창출과 농장 경영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응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 '말천방 들노래 축제' 성료

### 삼계면 두월마을서 열려

임실군 삼계면에서는 29일 두월마을 일원에서 흥겨운 우리 가락과 함께하는 '말천방 들노래 축제'가 열렸다.

이 날 축제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마을 주민, 향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천방 들노래 공연 및 전통 혼례식을 재연했고, 마을사진 전시, 가족대항 제기차기 경연 및 뿔돌 돌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어울림한마당'은 삼계면 청년회,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지역 풍물패 등이 대거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 주민의 재능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흥겨운 자리도 마련됐다.

말천방 들노래 축제는 전통적인 농경 문화 쇠퇴와 더불어 사라져 가는 농요를 현대에 복원, 전승하고자 삼계 두월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개최하는 축제로서, 2012년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축제 주제인 '말천방 들노래'는 두월마을의 옛 지명인 말천방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농요를 지칭하는 것으로, 천수답 일색이었던 농토에서 고된 농사일의 피로도 덜고 기운을 북돋고 풍요를 지원하기 위해 불리었던 농요였다.

1970년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었지만 1979년 대구대회를 끝으로 전승의 맥이 끊겼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2012년 말천방 들노래 한마당 축제위원회를 조직하여 들노래 복원을 시작하였고, 2015년 도부터 4개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마을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말천방 들노래 전승 및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2017년 임실군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남원시는 올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45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시·읍·면·동에 2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총 118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88명)의 산불인력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원시에서는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7개소 및 7개 노선 24km를 입산 통제하고, 산림 인접지에서의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불위험물질 사전제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산불발생 원인 중 논·밭두렁 소각 등 산림 인접지 소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 홍보하는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연찬회를 29일 가졌다.

# 순창군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순창군은 다음달 6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진행한다.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사전조사'로, 순창군 전 지역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조사의 표본 틀 제공 및 인구·가구·주택 등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는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현재 관내의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주(빈집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항목은 모든 거주에 대하여 주소, 조사구분, 거주종류, 조사대상 등 4개의 기본 항목과, 해당가구에 대한 거주가능가구수, 옥탑여부, 농림어업 등 8개의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방식은 현장확인과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 기획예산실 평가통계계(063-650-1172)로 전화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은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으로 연결된다”면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창군 내의 모든 가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찬회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남원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연찬회를 29일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분야별 착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자료 분석과 분임토의, 정보교환을 통해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명숙 위원장은 “연찬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으며, 김종관 위원장도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한층 강화된 의정 역량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